

CNSIC, 소다회 60만톤 증설

중국 CNSIC가 소다회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China National Salt의 자회사 Anhui Hefei Hongsifang과 Jinagsu Zhejiang Salt Chemical은 Heifei Circular Economy Demonstration Park에서 2011년 1월 소다회 공장을 착공했다.

CNSIC Hefei Chemical의 주력사업 분야인 소다회 증설은 합성 암모니아 시리즈의 3번째 프로젝트로 총 4억위안을 투자해 1단계로 소다회 30만톤 공장을 건설하고, 2단계에서 60만톤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CNSIC 관계자는 “합성 암모니아 프로젝트에 총 32억위안이 투자돼 2102년 6월 이전에 완공할 예정”이라며 “최근 거의 완공된 40만톤의 비료단지는 2011년 2월 이전에 시험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성 암모니아 공장은 생산능력이 28만톤으로 2010년 9월30일 첫 가동 이후 순조롭게 가동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아란 기자>

<화학저널 2011/03/31>